다키 렌타로 기념관

불과 23 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한 다키 렌타로(瀧廉太郎, 1879-1903)는 일본 근대 음악사에서 중요한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. 렌타로는 그 짧은 생애 중 2 년 반을 다케타 지역에서 보냈습니다.

도쿄에서 태어난 렌타로는 아버지가 관공서에서 근무하여 유소년 시절 이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. 렌타로가 12 세 때 아버지가 오늘날의 다케타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군수가 되어 일가는 군수에게 배정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. 그 건물을 정비해 그의 작품 제작에 영향을 준 당시 그대로의 주거 공간을 견학할 수 있는 곳이 이 다키 렌타로 기념관입니다.

미닫이문을 열면 일본식 정원을 바라볼 수 있으며, 그 문으로 구분된 전통적인 각 다다미방에는 서양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일본풍과 서양풍의 양식이 혼재된 메이지 시대(1868-1912)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시 패널에는 다키 렌타로의 이야기와 그의 수많은 곡에 얽힌 역사적 배경이 전시되어 있으며, 렌타로가 작곡한 손으로 쓴 악보도 몇 개 전시되어 있습니다. 또한 다케타 지역에서 지낸 기간 동안 렌타로는 오카 성터와 가까운 현지 학교에서 피아노의 기초를 배웠으며, 이 오카 성터가 그의 가장 유명한 곡으로 여겨지는 '황성의 달'에 영감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1901 년, 도쿄 음악 학교를 졸업한 렌타로는 같은 해에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유학했습니다. 하지만 그곳에서 심한 결핵을 앓아 겨우 1 년 만에 귀국했습니다. 관내에는 말년을 보낸 오이타시에서 렌타로가 쓴 편지도 전시되어 있습니다.